

# “쉽고 즐거운 클래식 무대 만들고 싶어요”

## 2018 주목! 이 사람

〈5〉 소프라노 윤하나

전남대 성악 전공 2010년 美유학  
북텍사스 주립대 최고연주자 과정  
2015년 귀국 여수·광주서 독창회

광주시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  
헨젤역 발탁 매일 6시간씩 맹연습  
“노래로 많은 사람과 행복 나눌 것”



지난 12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광주시립오페라단 연습실에서 ‘헨젤과 그레텔’을 연습 중인 소프라노 윤하나의 모습.

역이 아닌, 그레텔 역으로 참가했죠. 그레텔 역에는 발탁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헨젤’을 연기하게 돼 열심히 연습중에 있습니다.”

그는 “헨젤 역을 맡은 것이 나에게 큰 도전이다”며 “지금까지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이나 여성스러운 역할만 맡아 무대에 올랐는데 남자, 게다가 소년인 헨젤을 소화해내려고 하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일 6시간씩 맹연습중인 윤 씨는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전달과 극중 마녀로부터 여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오빠인 헨젤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관객이 어린이들이라 보니 가사전달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역할에 비해 음악대가 낮은 헨젤을 연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가사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남자 역할은 처음인데다 오빠로서의 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을 표현해 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마흔 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윤씨는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될 생각이요.

“소프라노의 전성기는 마흔 살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전성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젊은 나이오페라 무대에서 큰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때와는 다르게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는 가장 해보고 싶은 역으로 푸치니 ‘라보엠’의 ‘미미’를 꼽았다.

“지난해 열린 ‘라보엠’ 무대에서는 주요 아리아들만 노래했어요. ‘미미’ 역할 자체가 한국사람의 정서와 맞다고 생각해 욕심이 나오. 관객들에게 ‘미미’하면 윤하나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윤 씨는 또 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 출강해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이며 올 하반기에는 독창회도 개최할 생각이요.

“많은 분들이 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많이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쉽게 클래식을 접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이라는 목표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만큼 노래로서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CC가 현재 운영중인 ‘ACT창제작센터 오픈랩’의 모습.

## ‘커먼키친 스위트스팟’ 디저트 요리 시연행사

16~20일 ACC 문화창조원

‘요리’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이동식 주방 퍼포먼스가 열린다. 작가가 공간을 이동하며 관객들에게 디저트 요리를 대접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커먼키친 스위트스팟(Sweet Spot)’ 디저트 요리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16일~20일 오후 4시~6시 ACC 문화창조원 로비, 라이브러리파크 라운지.

ACC는 공간과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해 창작자 활동인 ‘ACT창제작센터 오픈랩’을 운영중이다. 현재 6팀 12인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프로그램 참여자인 유명서 작가의 요리 시연행사다. 유 작가는 ACC 내부를 이동하며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매일 30명의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유 작가는 자신의 요리경험과 음식에 관한 철학을 관객들과 나누며 소통할 계획이다.

NETFLIX 채널의 인기 다큐멘터리 연작인 ‘요리를 욕망하다’의 주인공 마이클 폴란 교수의 레시피를 주로 다루며 분자요리를 응용해 만든 호밀빵, 그릭요거트, 올리브 오일 사베트 등도 만든다. 16일 오후 2시 전당 문화창조원 대나무정원에서 ‘푸드 랩 캠프’를 진행하며 (주) 파파오가니의 차진용 대표와 함께 ‘건강한 우유’와 ‘우유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캠프는 온라인(soundcloud.com/byungseo-yoo)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ACC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남도국악원 11월까지 ‘찾아가는 국악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공연

복지시설 8곳 19일까지 신청 받아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성열)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을 개최한다.

‘찾아가는 국악원’은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에게 국악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과 시설생활인들의 문화지수 향상을 목표로 신청기관 중 8곳을 대상으로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연 유치를 원하는 단체는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인 또는 시설단체로서 오는 19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6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공지 또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국악원’은 선정기관의 공연장 여건과 관객수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1-540-403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독립영화전용관 명칭 공모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3월 광주영상 복합문화관 6층 상영관에 개관할 예정인 독립영화전용관의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독립영화에 대한 저변확대와 전용관 개관을 맞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메일(jcinema@daum.net)과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접속해 ‘이름’과 ‘의미’ 등에 대해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이름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선정된 명칭의 제안자에게는 독립영화전용관 연간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독립영화전용관은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지원 사업에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응모해 호남권 최초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발권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기획 등을 거쳐 오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ACC 내부를 이동하며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매일 30명의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유 작가는 자신의 요리경험과 음식에 관한 철학을 관객들과 나누며 소통할 계획이다.

NETFLIX 채널의 인기 다큐멘터리 연작인 ‘요리를 욕망하다’의 주인공 마이클 폴란 교수의 레시피를 주로 다루며 분자요리를 응용해 만든 호밀빵, 그릭요거트, 올리브 오일 사베트 등도 만든다.

16일 오후 2시 전당 문화창조원 대나무정원에서 ‘푸드 랩 캠프’를 진행하며 (주) 파파오가니의 차진용 대표와 함께 ‘건강한 우유’와 ‘우유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캠프는 온라인(soundcloud.com/byungseo-yoo)을 통해 청취 가능하다. ACC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공연 유치를 원하는 단체는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인 또는 시설단체로서 오는 19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6일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공지 또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국악원’은 선정기관의 공연장 여건과 관객수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1-540-403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독일 역사와 문화 조명 광주박물관대학 3월 12일~5월 30일 상반기 강좌

바흐, 괴테, 니체 등 독일의 예술가와 철학자의 예술과 사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이 매년 진행하는 ‘제28기 광주박물관대학’은 올 상반기 ‘사색의 제국, 독일’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과 (사)국립광주박물관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주박물관대학’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깨우는 융합의 문화강좌이다.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박물관대학 과정에서는 18세기 독일 바로크 왕실 예술품

감상 기회와 더불어 독일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할 예정이다. 현재 박물관은 오는 4월 8일까지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드레스덴 박물관연합 명품전’을 개최중이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왕이 사랑한 보물 특별전 전시 프로젝트’, ‘바흐와 바그너의 궁정음악’, ‘근세 건축과 바로크’, ‘독일 철학자들의 산책’, ‘그림형제 동화 속으로’, ‘니체와 함께하는 독일여행’ 등 총 12차시로 운영된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오후 2시~4시)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최은영(서울대학교 교수), 강경원(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마이스터), 양용기(독일을 비롯한 세계 80여 건축물 설계), 안정오(고려대학교 교수), 이현애(‘독일 미술가와 견대’ 저자) 등이다. 강사진은 독일에서 생활하며 전문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독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강의 후에는 다큐멘터리 및 영화 상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15일부터 누리집(gwangju.museum.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선 250명분의 062-570-7053, 706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WAG THE DOGS'

기획-광주올리 다시보기-프로그램  
문화자산만들기 광주올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기  
'축가사'가 나올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SLOVENIA

동네 책방이 빠지면 책방벌교  
여행과 문화의 연동된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예요"

**취재의 전신**  
유망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부름은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업 문학관

해당수신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계마을, 울진 평해읍 거길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마을

드림드림 (따라잡기)  
'위로 한 톨,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백국남의 대중문화 X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5·18평화 '메이퍼블'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병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절강 지남 순환 땅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안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